

## 등록금심의위원회 회의록(1차)

개최일시	2021. 1. 6(수) 14:00~16:50	회의장소	대학원별관 윤세영홀
참석자 (13명)	강동범(교무처장), 김영석(관리처장), 노아정(자연과학대학 공동대표), 박수정(사범대학 공동대표), 배소현(예산팀장), 백옥경(학생처장), 유세경(기획처장), 이상은(삼일회계법인), 이수린(학부 총학생회장 직무대행/사회과학대학 공동대표), 이희주(대학원 학생회장), 정도연(학부 부총학생회장 직무대행/경영대학 공동대표), 조은진(신산업융합대학 공동대표), 흥기석(총무처장)		
불참자 (0명)			
안건	등록금심의위원회 회의 녹음 절차(안)에 대한 논의 교비회계 2020학년도 추경예산(안), 2021학년도 예산(안) 심의 및 의결 부속병원회계 2020학년도 추경예산(안), 2021학년도 예산(안) 심의 및 의결 등록금회계잉여금처리원칙 의결		
내용	<p>■ 개회</p> <p>- 기획처장이 위원장 선출을 제안하며 교무처장을 위원장으로 추천하다. 위원 전원 동의로 교무처장이 위원장으로 선출되다.</p> <p>- 위원장이 등록금심의위원회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회의 진행 과정에서 각 위원들의 이해와 양보, 협력을 당부하다. 위원장 이하 각 위원들이 돌아가며 소개하는 시간을 가지다.</p> <p>- 위원장이 예산팀장에게 2021학년도 등록금 책정 일정에 대해 질의하고, 예산팀장은 등록금 책정 기한이 1월 14일임을 확인하다. 위원장이 외부 위원의 일정 및 교직원 위원의 공무 일정에 대해 양해를 구하고, 차기 회의일로 1월 12일, 1월 13일, 1월 14일을 제안하다.</p> <p>- 학부 부총학생회장 직무대행이 회의 차수를 3차까지 연장할 수 있는지 질의하다.</p> <p>- 기획처장이 코로나19 상황의 엄중함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회의 횟수는 2회로 하되, 회의 중 논의시간을 충분히 갖는 것을 제안하다. 기획처장이 학생 위원의 의견에 최선을 다해 답할 것임을 설명하며 2차 등록금심의위원회 회의일정을 1월 12일로 제안하다.</p> <p>- 2차 등록금심의위원회 일정은 학부 학생위원의 수업일정을 피해 1월 12일 오후 4시, 대학원별관 윤세영홀로 확정하는 것에 모든 위원이 동의하다.</p>		

- 예산팀장이 회의록은 회의 개최일 이후 10일 이내로 공개하여야 함을 말하며 회의록 작성일정을 설명하고, 본인 발언에 한해 수정할 수 있음을 고지하다.

- 위원장이 회의 개회요건이 충족됨을 확인하고 제 1차 등록금심의위원회(이하 “등심위”라 함)를 개회하다.

## ■ 회의내용

### 1. 등록금심의위원회 회의 녹음 절차(안)에 대한 논의

- 위원장이 기획처장에게 첫 번째 안건인 회의 녹음 절차(안)에 대한 설명을 요청하다.

- 기획처장이 그동안 학생위원과 등심위 구조에 관해 지속적인 의견교환을 하는 과정에서 회의 참관에 대한 부분이 수차례 논의되었으나, 참관 허용은 합의 불가하였음을 확인하다. 학생위원이 참관을 요청하는 이유가 속기록이나 회의록이 제대로 작성되지 않아 정확한 회의 내용 공유가 어렵기 때문이라는데, 지난 회의에서는 보완책으로 속기사를 고용해서 속기록을 쓰거나 회의 내용을 녹음하는 방식을 검토하는 것에 협의하였음을 설명하다. 학교에서 검토한 결과, 속기사 고용은 비용적인 측면 뿐 아니라 회의 일정에 맞게 적시에 고용하는 어려움, 보안 등의 문제가 있어 속기사 고용보다는 녹음을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였음을 설명하다.

- 기획처장이 사내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녹음 절차 초안을 마련했음을 밝히며 회의 녹음의 전제사항을 설명하다. 첫째, 이번 회의에서 회의 녹음 방식에 합의하더라도 매 회의마다 회의참석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함을 확인하다. 둘째, 녹음의 목적이 회의록 작성이므로 회의록이 공개되는 것이지 녹음파일이 공개되는 것은 아님을 명확히 밝히고, 회의록 작성이 끝나서 위원의 서명이 완료되면 녹음파일은 즉시 폐기되어야 함을 설명하다. 셋째, 민감한 사항이나 개인정보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비밀심의가 보장되어야 하므로 위원장에게 녹음을 개시하고 중지할 권한이 있음을 설명하다. 절차적으로는 회의 개회 전 위원 전원이 동의서를 작성한 후 녹음을 개시하고, 회의 도중 비밀논의가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녹음의 일시중지와 재개를 실시하며, 학생위원측 서기록 작성자는 회의록 작성을 위해 예산팀 담당자의 입회하에 지정된 장소에서 녹음 자료 열람이 가능하고, 회의록 작성과 게시가 완료되면 녹음자료는 폐기하는 것으로 마무리됨을 설명하다.

- 기획처장이 각 위원들의 의견을 묻고, 위원장에게 초안에 법적인 문제가 없는지 검토 요청하다.

- 위원장이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위법이므로 참석자 전원의 동의가 필수임을 확인하다. 등심위는 위원의 임기에 따라 위원 구성이 달라지며, 구성원이 바뀌면 회의 녹음에 대한 각 위원의 의견이 달라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매 회의마다 전원 동의가 필수임을 설명하며, 학교의 초안에 대하여 위원들의 의견을 묻다.
- 학부 총학생회장 직무대행이 비밀논의 판단 기준과 관련하여, 한 위원의 비밀논의 제안 시 비밀내용으로 판단하는 것인지, 혹은 위원 과반수 동의 시 비밀내용이라고 판단하는 것인지 질의하다.
- 위원장이 비밀논의 시에는 녹음을 일시중지하는 것임을 설명하며, 참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어 녹음을 일시중지 및 재개하는 방식을 제안하다.
- 기획처장이 교무처장의 의견에 동의하며 ‘필요할 경우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어’ 위원장이 녹음의 일시중지와 재개를 실시하는 것으로 명확히 하는 것을 제안하고, 모든 위원이 이에 동의하다.
- 위원장이 녹음자료의 보관 및 폐기 주체가 예산팀으로 지정된 이유에 대해 질의하다.
- 기획처장이 녹음자료의 유출 시 자료 관리자가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게 되므로 법적 책임의 주체는 공식적인 조직인 학교, 특히 주무부서인 예산팀에서 담당하는 것이 적절하다 답변하고, 학생위원 측에서 요청 시 서기록 작성자가 녹음자료를 열람할 수 있음을 재차 설명하다.
- 위원장이 학교의 초안에 대해 위원들의 의견을 묻고, 위원 전원이 동의하였음을 확인하다.

#### • 합의사항

- 등록금심의위원회 회의 녹음 절차에 대한 합의
  - ① 매 회의 시 회의 참석자 전원의 녹음 동의 필수
  - ② 녹음의 목적(회의록 작성) 달성 즉시 녹음자료 폐기
  - ③ 비밀심의 보장을 위해 위원장이 참석위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녹음 중지 및 재개
  - ④ 녹음자료 보안 관리를 위해 녹음자료의 생성, 보관 및 폐기 주체는 예산팀으로 지정
  - ⑤ 자료 유출 방지를 위해 학생위원 측 서기록 작성자에 한해 지정된 장소에서 예산팀 담당자의 입회하에 녹음자료 열람 가능

	<p>- 자연과학대학 공동대표가 학생 요구사항을 적극 검토하고 반영해준 것에 대해 감사를 표하며, 예년과 같이 등심위 구조와 관련한 논의 진행을 희망한다고 말하다. 다만, 구조 관련 사항은 이번 등심위에서는 논의하지 않고, 예전처럼 별도의 회의로 진행할 수 있는지 문의하다.</p> <p>- 기획처장이 3월부터는 신임 총장 및 신임 처장들로 학교의 새 집행부가 구성될 예정임을 설명하며, 구조 관련 논의는 차후 등심위 위원으로 위촉될 신임 처장단과 진행하는 것이 합당할 것이라 답변하다. 4월 이후에 구조 관련 등심위가 별도로 진행될 수 있도록 본 회의록에 기록하고, 신임 처장에게 업무 인계 시 관련 내용을 전달하겠다고 답변하다.</p>
	<p>2. 2020학년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1학년도 예산(안) 심의·의결</p> <p>가. 교비회계 2020학년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1학년도 예산(안), 등록금회계잉여금 처리원칙</p> <p>- 위원장이 기획처장에게 2020학년도 교비 추경예산(안) 및 2021학년도 교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요청하고, 기획처장이 2020학년도 교비 추경예산(안) 및 2021학년도 교비 예산(안)에 대해 수입 및 지출의 증감요인을 덧붙여 설명하다. 이어 등록금회계잉여금 처리 원칙에 대해 설명하다.</p> <p>- 위원장이 2020학년도 교비 추경예산(안) 및 2021학년도 교비 예산(안)에 대해 전 위원에게 질문을 요청하다.</p> <p>- 학부 부총학생회장 직무대행이 올해 연구학생경비 중 고시반 예산으로는 얼마가 편성되어 있는지 질의하다.</p> <p>- 예산팀장이 매년 정례적으로 편성되는 예산이 2억 원이며, 시설 확충 등을 위해 특별예산으로 1억 원 이상을 추가 지원하여 기자재 등을 순차적으로 교체하고 있음을 설명하다. 올해의 경우 LEET(법학적성시험) 관련 특별예산 약 4천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음을 덧붙이다.</p> <p>- 학부 부총학생회장 직무대행이 올해 특별예산이 4천만 원인지 질의하고, 예산팀장이 기존 특별예산 1억 원에 더하여 LEET 지원을 추가 편성하였음을 재차 설명하다.</p> <p>- 학부 부총학생회장 직무대행이 올해 고시반 예산 총액이 얼마인지 질의하고, 예산팀장이 약 3억 4천만 원이라고 답하다.</p>

	<p>- 학부 부총학생회장 직무대행이 2020년 예산 기준으로 타대학 고시반 예산을 조사한 바에 따르면, 본교는 1억 4천만 원을 편성한 것에 비해 성균관대는 9억 원을, 한양대는 8억 원을 편성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하다. 아울러, 타대는 유명강사 초청 등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고시반을 적극 지원는데, 본교는 지원이 부족하다고 느껴 학생들의 불만이 많은 상황임을 말하다. 올해 편성된 예산도 타대에 비해서는 부족한 수준임을 우려하며, 고시반 지원이 대외 이미지와 직결되기 때문에 예산을 좀 더 확충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하다.</p> <p>- 기획처장이 타대학의 공개 자료에서는 고시반 지원 항목이 어떻게 구성되어 산출된 금액인지 세부사항을 알 수는 없음을 설명하며, 장학금 형태로 지원되는 부분도 포함되어 있을 것으로 추측한다고 말하다. 학교가 설명한 고시반 예산은 장학금 등은 제외하고 기관에 직접적으로 지원되는 경비만 기준으로 산출한 것이므로, 단순 비교가 어렵다고 설명하다. 그러나 학생들로부터 고시반 지원 확대 요구가 지속적으로 있어, 2018년부터 매년 특별예산을 1억 원씩 편성하고 있음을 덧붙이다. 또한, 작년에는 학생위원회가 고시반 특별예산을 경상예산으로 전환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경상예산으로 편성할 경우 용도가 제한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특별예산으로 편성하여 유연하게 사용하는 것이 더 유리함을 설명하다. 표면적으로 드러나지 않더라도 작년 보험계리사반 고시실 신설, 회계사반 컴퓨터실 기자재 교체 등 다양한 형태로 고시반 지원을 확대하고자 노력 중임을 설명하며, 본교와 상황 및 기준이 다른 타대학과의 단순 비교를 지양해 줄 것을 부탁하다.</p> <p>- 위원장이 과거 볍대 고시반 운영의 예를 들며, 고시반 예산이 장학금, 식비 지원 등 학생에게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예산 외에도 고시반 조교장학금 등 간접적인 방식의 지원도 있음을 덧붙이다. 아울러, 비교시반 학생과의 형평성도 고려되어야 하므로 한정된 자원을 균형있게 배분하고자 노력하고 있음을 설명하다.</p> <p>- 예산팀장이 학교에서도 고시반 지원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음을 말하며, 코로나로 인해 학교의 재정이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고시반 지원 예산 확보는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음을 덧붙이다. 학교의 예산규모나 학생 수에서 차이가 있는 타학교와 지원총액을 단순비교 하기보다는 1인당 지원 규모 등을 입체적으로 비교하여 주기를 당부하다.</p> <p>- 학부 부총학생회장 직무대행이 고시반 지원 확대는 학교의 아웃풋, 대외이미지와 관련된 중요한 부분이므로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것임을 말하다.</p> <p>- 학부 총학생회장 직무대행이 고시반을 지원하여 좋은 성과를 내는 것이 궁극적으로 학교발전에 도움이 될 것임을 덧붙이다.</p>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원장이 추가 질의사항 및 의견을 요청하다.</li> </ul> <p style="margin-top: 1em;">- 학부 총학생회장 직무대행이 연구학생경비 중 실험실습비에 대하여 질의하다. 작년 4월 결산부터 각 단과대학(이하 '단대'라 함)을 통해 실험실습비를 열람하도록 하였는데, 공개방식을 단대 자율로 정하고 있어 단대마다 공개범위, 기준 등이 다름을 말하다. 학교 본부에서 실험실습비 공개와 관련해 단대에 강제성을 줄 수 있는지 질의하다.</p> <p style="margin-top: 1em;">- 기획처장이 실험실습비 단대별 자율 공개는 작년 등심위에서 학생위원 의견을 수렴하고 교무회의에서 검토·결정하여 시행하게 되었음을 설명하다. 실험실습비의 경우 단대별, 전공별로 학문적 특성 및 학사운영 방식이 달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기에 어려움이 있음을 설명하고, 타대학에서도 단대별로 자율적으로 공개하고 있음을 말하다. 공개 방식을 정하고자 한다면, 올해에도 동일한 의사결정 과정을 거쳐 교무회의에서 논의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말하다.</p> <p style="margin-top: 1em;">- 학부 총학생회장 직무대행이 숙대의 경우 학교에서 단대에 실험실습비 내역을 기간을 정하여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하고, 공개하지 않을 경우 단대에 따로 연락을 취해 학생들이 자료를 열람하도록 지원하고 있음을 예로 들며, 본교도 학생들의 알 권리를 위해 실험실습비 공개에 어느 정도 강제성을 부여하는 것을 제안하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범대학 공동대표가 2021학년도 연구학생경비 중 교내장학금에 대해 질의하다. 올해 교내장학금은 대학원 장학금의 영향으로 증액편성된 것 같은데, 학부 장학금은 그대로 동결인지 문의하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생처장이 학생위원이 질의한 사항은 2020년 추경 대비 편성액 증감을 표시한 것임을 설명하다. 대학원 장학금은 추경 예산 편성 시에는 총월율을 반영하여 실제 수입에 균접하게 편성하고, 당초 예산 편성 시에는 입학정원을 고려하여 추경 대비 증액편성 하는 것임을 설명하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범대학 공동대표가 등록금 수입이 증가해야 장학금 예산을 확대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접근보다는 장학금을 먼저 확충하여 학생의 등록률을 제고하면 등록금 수입이 동반 증가할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하며, 학교의 장학금 확충 계획에 대해 질의하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생처장이 장학금은 일단 확대되면 학교의 재정상황이 악화되더라도 다시 축소하기는 어려운 특성이 있으므로 급격한 예산 확대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을 이해해달라고 말하다. 본교의 1인당 교내장학금액을 타대학과 비교해 보면 서울 주요대학 중 성대 다음으로 2위에 해당하여 본교의 지원이 적지 않</li> </ul>

	<p>음을 설명하다. 다만, 교외장학금의 비율이 높은 대학들이 있어, 전체 장학금 규모를 비교할 때에는 다소 순위가 떨어질 수밖에 없음을 덧붙이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범대학 공동대표가 장학금이 확충되어야 학생이 학업에 집중하고 학교의 아웃풋도 향상될 것임을 말하다.</li> </ul> <p>- 학생처장이 본교의 학생 1인당 평균 장학금이 결코 저조한 수준이 아님을 말하다. 현재 학교는 기금을 인출해야만 지출을 충당할 수 있을 정도로 재정 여건이 양호하지 않은 상황임을 덧붙이다. 또한, 매년 입학금 감소로 인해 등록금 수입 자체가 축소되고 있는 것에 반해, 장학금의 규모는 그대로 유지하고 있으므로 실질적인 장학금 지원 비중은 확대되고 있는 것임을 설명하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산업융합대학 공동대표가 2020학년도 추경 및 2021학년도 예산 중 기금별 적립 인출 상세내역에 대해 질의하다. 임의기금 중 인출용도가 우수 인력확보 지원으로 큰 금액이 표기되어 있고, 동시에 우수인력확충기금에도 일부 금액이 표기되어 있는데, 두 가지가 서로 다른 것인지 문의하다.</li> </ul> <p>- 기획처장이 우수인력확충기금은 AI, 의생명 등 첨단분야를 비롯한 우수연구자 및 교원 초빙, 연구인건비 지원 등을 위한 기금임을 설명하다. 등록금 재원으로는 교원의 인건비 및 연구비 지원을 전부 충당할 수 없으므로, 나머지 부분을 특정목적기금에서 인출하여 충당할 수밖에 없음을 덧붙이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산업융합대학 공동대표가 우수인력확충기금 인출과 우수인력확보 지원 용도의 인출이 같은 대상에게 지원되는 것인지 질의하다.</li> </ul> <p>- 예산팀장이 지원대상은 다를 수 있으나 우수인력 확보라는 사용목적은 같음을 설명하다. 우수인력확충기금 등 특정목적기금은 목적별 인출 가능액에 한도가 있으므로, 같은 목적에 대하여 우수인력학충기금으로 부족한 부분을 대학역량확충기금 등 다른 임의기금에서 충당하여 사용한 것임을 설명하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부 총학생회장 직무대행이 2020학년도 추경예산 연구기금 인출 대응비 8억 원이 무엇인지 질의하다.</li> </ul> <p>- 예산팀장이 연구지원과제 등에 대한 대응비라고 답하다.</p> <p>- 기획처장이 학교가 대형연구과제 수주 시, 학교에서 일부 연구비를 대응해서 지원해야 하는 경우가 있으며, 대응비의 규모가 클수록 평가 결과가 높아짐을 설명하다.</p> <p>- 관리처장이 BK사업 등의 예를 제시하다.</p>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범대학 공동대표가 2021학년도 예산의 건축기금 인출용도와 관련하여 학관 리모델링 사업 인출액은 토지 및 건축상세표에 표기되어 있는데, 수영장 용도변경 인출액은 어디에 표기되는지 문의하다.</li> <li>- 예산팀장이 회계처리상 토지와 건축물은 자산으로 구분되므로 토지 및 건축 상세표에 표시하는 것이며, 수영장 용도변경은 비용이므로 건축물 관리비에 포함되어 있음을 설명하다.</li> <li>- 자연과학대학 공동대표가 2020학년도에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기부금 수입을 적게 편성하였는데, 2021학년도에는 증액 편성한 이유를 질의하다.</li> <li>- 기획처장이 올해는 신임 총장님의 임기가 시작되고, 학관 리모델링과 같은 대규모 공사가 착공되어 활발한 펀드레이징 활동에 대한 기대감이 높은 해이므로 대외협력처와 협의하여 기부금 예산을 증액 편성하였음을 설명하다.</li> <li>- 대학원 학생회장이 2020학년도 연구학생경비에서 조교장학금이 감소된 것에 대해 질의하다. 대학원생 조교 축소로 인해 장학금이 감소한 것에 대해 조교장학금으로 학비를 충당하고 있는 대학원생의 사정을 설명하다. 대학원생 조교장학금 축소의 이유가 코로나로 인한 사업 축소에 따른 비용 자연감소의 영향인지, 대학원생 조교를 전문인력으로 대체하면서 발생한 구조적 변화인지 질의하다.</li> <li>- 기획처장이 대학원생 조교장학금 축소는 전공사무실 조교에 한정되는 것이라고 설명하며, 전공에 따라 조교인력 운영상황이 다른 부분에 대하여 총무처장에게 보완설명을 요청하다.</li> <li>- 총무처장이 전공사무실의 경우 행정조교의 근무기간이 짧고 인력 교체가 잦아 학과 행정업무의 전문성 부족, 학생·학사업무 지원 미흡 등 학과의 애로사항이 있었음을 말하다. 이에 일부 단과대학에서 학과조교를 계약직원으로 교체하는 과정에서 표면적으로 조교장학금이 축소된 것임을 설명하다.</li> <li>- 대학원 학생회장이 조교장학금 축소에 대한 보완책이 계획되어 있는지 질의하다.</li> <li>- 기획처장이 행정인력 변화에 따른 실제 조교장학금 감소분은 크지 않으나, 장학금 외에도 대학원생을 다양한 형태로 지원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답하다. 대학원혁신지원사업 프로그램을 통한 직·간접 지원, 대학원생 자녀의 교내 어린이집 이용 지원, 연구과제 운영 활성화를 통한 연구조교 인건비 지</li> </ul>
--	--

	<p>원, AI 등 첨단분야 공통과목 개설을 통한 연구역량 강화 지원, 교과목 담당 TA 확대 등의 사례를 들며, 대학원생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여러 지원방안을 계획하고 있음을 설명하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생처장이 2020학년도에 조교장학금은 감소했으나, 생활비 지원 장학금은 증가하였음을 설명하며, 다양한 방식으로 대학원생을 지원하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말하다.</li> <li>- 대학원 학생회장이 연구활동 지원에 대한 학교의 설명은 이해되나 대학원생의 학비 부담이 학부생에 비해 큰 것을 지적하며, 학생 입장에서 등록금은 직접적인 비용임을 고려해줄 것을 당부하다.</li> <li>- 위원장이 대학원혁신지원사업 등을 통해 다각적으로 적극적인 지원을 고려할 것이라고 말하며, 위원들에게 추가질의를 요청하다.</li> <li>- 신산업융합대학 공동대표가 2021학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코로나 관련 예산 편성 여부와 편성 세부사항을 질의하다.</li> <li>- 기획처장이 코로나 관련 예산은 별도로 분리 편성되지 않고 각 계정별 예산에 포함되어 전방위적으로 편성되어 있다고 답하다.</li> <li>- 예산팀장이 코로나 관련 예산은 소독, 방역인력 등 가시적인 방역활동 비용 이외에도 원격수업을 위한 교육용 기자재 및 정보통신 인프라 확충, 프로그램 지원 등 간접적인 비용이 포함됨을 설명하다. 다만, 2020년에는 코로나 방역 인프라 구축을 위해 2021년에 비해 초기비용이 상대적으로 더 투입된 것임을 덧붙이다.</li> <li>- 기획처장이 긴급하게 집행되어야 할 방역 비용은 별도 검토하여 신속히 집행하고 있으며, 추가 집행되는 비용은 2021학년도 추경예산 편성 시 반영됨을 설명하다.</li> <li>- 총무처장이 2020년에는 미화원 업무 증가, 손소독제·체온계 구비, 소독 용역비 등 직접적 방역비용이 증가하였음을 설명하다.</li> <li>- 신산업융합대학 공동대표가 특정 항목별 세부내역을 문의하며, 스피드게이트 확충 예산을 예로 들다.</li> <li>- 총무처장이 스피드게이트는 ECC 2번 출구에 설치되어 있고 현재 추가 설치계획은 없다고 답하다. 외부인 이용 시설이 다수 포함된 ECC 건물의 특성상, 현재 2번 출구 외에 스피드게이트 추가 설치가 어려움을 설명하다.</li> </ul>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산업융합대학 공동대표가 작년 등심위 회의에서 CCTV를 1,800대 까지 확대하기로 한 것에 대해 조치결과를 질의하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총무처장이 2020년에 경비시설을 크게 확충하여 CCTV는 2019년 1,550대로 2020년 1,961대로 400여대 확충, 세콤은 1,400여대에서 1,600여대로 200여대로 확충하였다고 답하며, 2022년까지 세콤은 2,000여대, CCTV는 2,500여대까지 추가 확충할 계획임을 밝히다. 또한, 비상벨 타워 5개를 기숙사 주변 등에 추가 설치하여 교내 치안을 강화하였음을 덧붙이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부 총학생회장 직무대행이 2021학년도 예산 기금별 적립 현황에 대해 질의하다. 기금 적립·인출액 현황을 보면 학생에게 직접적으로 지원되는 연구기금 및 장학기금에 적립되는 금액보다 타 기금에 적립되는 금액이 더 큰 것은 교육부의 권고와 상반되는 양상을 보이는 것이라고 덧붙이며, 그 이유에 대해 질의하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획처장이 장학기금과 연구기금은 기부자의 요청에 의해 해당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도록 적립되는 기금이고, 대학역량확충기금 등 타 기금은 대학발전을 위해 상대적으로 유연하게 적립·인출할 수 있는 기금임을 설명하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부 총학생회장 직무대행이 임의기금 인출용도 중 박물관 운영비에 대하여 코로나의 영향이 반영된 것인지 질의하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예산팀장이 2020학년도에 코로나 상황이 있었지만 박물관이 폐관한 것은 아니어서 고정성 비용은 불가피하게 지출되었으므로 큰 차이가 없음을 설명하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산업융합대학 공동대표가 코로나로 인한 원격수업 지원 예산과 관련하여 올해부터 일러스트, 포토샵 등 프로그램의 교외 사용 지원이 중단된 이유와 금년도 지원계획에 대해 질의하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생처장이 학생위원이 언급한 해당 프로그램들은 Adobe 자체의 서비스 정책 변화에 따른 것으로 추측한다고 답하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획처장이 원격수업을 위한 소프트웨어 지원 예산은 작년에도 특별 예산을 편성하여 적극 지원하였으며, 올해에도 정보통신처 등 관련부서의 요청이 있을 경우 예산 지원을 검토할 것임을 답하다. 다만, Adobe 자체의 정책적 변화에 따른 사항은 지원에 한계가 있음을 덧붙이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생처장이 학생위원의 의견을 정보통신처와 논의하여 차기 회의에서 답변하겠다고 답하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부 총학생회장 직무대행이 작년 등심위에서 예산자료에 예산집행을 정보 추가를 요청한 바 있으나, 금번 예산자료에 집행율이 미표기됨을 지적하다.</li> <li>- 예산팀장이 집행율은 예산 대비 실제 집행액의 비율이므로, 학생위원회가 언급한 사항은 결산자료에 대한 요구사항이라고 답하다.</li> <li>- 사범대학 공동대표가 2021년 행사비 예산이 증가한 것과 관련하여 코로나 상황이 정상화될 것으로 예상하여 추경 대비 증액 편성한 것인지 질의하다.</li> <li>- 예산팀장이 2020년에는 코로나로 인해 행사를 적극적으로 진행할 수 없었으나 2021년에는 상황이 일부 회복될 것이라는 가정 하에 예산을 편성하였음을 설명하다. 기부금 모금 행사 등 재정 확충을 위해 불가피한 행사 예산 등을 고려하여 추경 대비 증액편성 하였으나, 예산편성 시점 이후로 약 1개월 사이에 코로나 상황이 급격히 악화되었음을 부연하다.</li> <li>- 사범대학 학생회장이 코로나로 인해 예년 대비 일부 축소되는 행사비를 학생회 행사 등 학생자치활동 비용으로 추가 지원할 수 있는지 질의하다.</li> <li>- 예산팀장이 학생처 내 학생상담센터 사업 지원, 단대별 활동 지원 등을 통해 학생지원비를 적극 집행하고 있다고 답하다. 다만, 학생위원회가 언급한 예산 잔액의 개념은 편성 예산 대비 발생하는 잔액이므로 당초예산 대비 추경예산이 축소되었다고 해서 자금이 남은 것은 아니라고 부연하다. 학교는 현재 재정 수지 불균형상태이며 수지차를 살펴봐야 한다고 설명하다.</li> <li>- 기획처장이 코로나로 인해 행사비는 평년 대비 감소하나, 반대로 방역비용 등은 상대적으로 증가하는 것임을 부연하다. 졸업식의 경우, 행사가 생략되는 대신 졸업가운 대여기간 연장으로 전체적인 비용은 증가하였음을 예로들다.</li> <li>- 학생처장이 학생자치활동과 관련하여 추가 지원이 필요한 사항은 학생처와 별도로 논의하여 줄 것을 요청하다.</li> <li>- 위원장이 학생처와 학생위원회가 원만히 논의할 것을 당부하며, 교비회계의 2020학년도 추경예산(안) 및 2021학년도 교비 예산(안), 등록금회계잉여금 처리원칙의 의결을 제안하다.</li> <li>- 신산업융합대학 공동대표가 등록금회계잉여금 처리원칙에 동의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질의하다.</li> </ul>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예산팀장이 등록금회계잉여금 처리원칙에 대해 재차 설명하고, 매년 본예산 책정 시 처리원칙에 동의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함을 말하다.</li>   <li>- 위원장이 교비회계의 2020학년도 추경예산(안) 의결을 제안하다. 학부 총학생회장 직무대행, 학부 부총학생회장 직무대행, 자연과학대학 공동대표, 사범대학 공동대표, 신산업융합대학 공동대표 총 5인이 반대하고, 위원장, 기획처장, 예산팀장, 학생처장, 총무처장, 관리처장, 대학원 학생회장, 외부전문가위원 총 8인이 찬성하여 교비회계의 2020학년도 추경예산(안)을 의결하다.</li>   <li>- 위원장이 교비회계의 2021학년도 예산(안)의 의결을 제안하다. 학부 총학생회장 직무대행, 학부 부총학생회장 직무대행, 자연과학대학 공동대표, 사범대학 공동대표, 신산업융합대학 공동대표, 대학원 학생회장 총 6인이 반대하고, 위원장, 기획처장, 예산팀장, 학생처장, 총무처장, 관리처장, 외부전문가위원 총 7인이 찬성하여 교비회계의 2021학년도 예산(안)을 의결하다.</li>   <li>- 위원장이 등록금회계잉여금 처리원칙의 의결을 제안하다. 참석 위원 13명 전원이 찬성하여 등록금회계잉여금 처리원칙을 의결하다.</li> </ul>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top: 10px;"> <p>• 의결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20학년도 교비회계 추경예산(안)</li> <li>- 2021학년도 교비회계 예산(안)</li> <li>- 등록금회계잉여금처리원칙</li> </ul> </div>
	<p>나. 부속병원회계 2020학년도 추경예산(안) 및 2021학년도 예산(안) 심의 및 의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원장이 2020학년도 부속병원회계 추경예산(안) 및 2021학년도 예산(안) 심의를 제안하여 부속병원의 전략기획본부장과 전략기획팀장, 재무팀장이 배석하다.</li>   <li>- 전략기획팀장이 의료원의 운영 현황을 보고하고 이어 위원장의 요청으로 양 병원의 2020학년도 추경예산(안) 및 2021학년도 예산(안)도 차례로 보고하다.</li>   <li>- 위원장이 2020학년도 부속병원회계 추경예산(안) 및 2021학년도 부속병원회계 예산(안)에 대한 질문을 요청하다.</li>   <li>- 외부위원이 2018년부터 의료원의 교원인건비 전출이 중단되었음을 지적하며 학교로의 전출금 지급 계획을 질의하고, 전략기획본부장이 인건비 전</li> </ul>

	<p>출 유예가 종료되는 2023년부터 전출할 계획임을 답하다.</p> <p>- 외부위원이 의료원 인건비 전출금 유예로 인한 교비회계 원금보존기금 잔액 감소에 대해 우려를 표하다. 이에 전략기획본부장이 서울병원의 운영실적이 목동병원 수준에 근접하게 향상되었음을 설명하며 계획대로 2023년부터 전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하다.</p> <p>- 외부위원이 의료원의 부채 규모와 상환 계획에 대해 질의하고, 재무팀장이 단계적 부채 상환 계획에 대해 답하다. 외부위원이 목표 달성을 위한 영업이익 규모를 언급하며, 2023년 학교로의 전출금 지급을 당부하다.</p> <p>- 총무처장이 2020학년도 추경예산 중 제예금인출 항목의 개념에 대해 질의하다. 이에 전략기획팀장이 병원회계에서는 기금이 없고 현금을 예치하는 것을 지출로, 예적금을 인출하는 것을 수입으로 회계처리 한다고 답하다.</p> <p>- 사범대학 공동대표가 서울병원은 코로나의 영향 없이 의료수익 증가를 예상하는지 질의하고, 전략기획본부장과 팀장이 병상 확대에 따른 입원환자 수입 증가를 예상한다고 답하다.</p> <p>- 사범대학 공동대표가 목동병원의 예를 언급하며, 서울병원의 상급종합병원 진입 계획을 질의하다. 이에 전략기획본부장이 교육수련병원 연차 충족 등 상급종합병원 진입 요건을 설명하며, 서울병원은 2027년부터 상급종합병원 진입이 가능할 것이라고 답하다.</p> <p>- 학생처장이 상급종합병원 진입 시의 변화에 대해 질의하고, 전략기획본부장이 의료수가가 5% 상승하는 등 의료원 수익에 긍정적인 영향이 있다고 답하다.</p> <p>- 위원장이 일반직 인건비에 대해 질의하고, 전략기획본부장이 병상 수준 유지를 위하여 간호사와 방사선사 등 의사 외의 병원 유지를 위한 고정적인건비 부분이 크다는 것을 설명하다.</p> <p>- 기획처장이 주요 대형병원은 의료외 수익 비중을 확대하여 재정을 확보하고 있음을 예로 들며 의료원의 수익구조 개선을 당부하자, 전략기획본부장이 건강검진 수익, 연구수익, 산학협력수입 등 수익구조 다변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하다.</p> <p>- 학부 총학생회장 직무대행이 목동병원과 서울병원의 의료인력 규모를 언급하며 서울병원의 의료인력 충원 계획을 질의하고, 전략기획본부장이 금년도 교수 충원 계획, 인턴 및 전공의 충원 계획을 설명하다.</p>
--	--

- 병원 관계자 전원이 퇴장하고, 위원장이 2020학년도 부속병원회계 추경예산(안) 및 2021학년도 예산(안)에 대한 의결을 제안하다. 학부 총학생회장 직무대행, 학부 부총학생회장 직무대행, 자연과학대학 공동대표, 사범대학 공동대표, 신산업융합대학 공동대표, 대학원 학생회장 총 6인이 반대하고, 위원장, 기획처장, 예산팀장, 학생처장, 총무처장, 관리처장, 외부전문가위원 총 7인이 찬성하여 부속병원 회계의 2020학년도 추경예산(안) 및 2021학년도 예산(안)을 의결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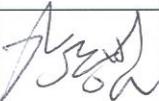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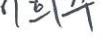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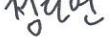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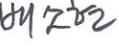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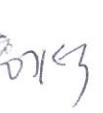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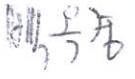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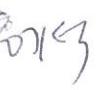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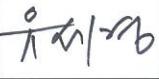
• 의결사항

- 2020학년도 부속병원회계 추경예산(안)
- 2021학년도 부속병원회계 예산(안)

■ 폐회

- 학부 총학생회장 직무대행이 지난 2020년 2차 등록금심의위원회에서 학생위원들의 자료 열람 시간을 늘려주겠다고 합의한 바를 확인하였는데, 올해 반영이 되지 않은 것 같다고 지적하다. 이에 예산팀장이 검토 후 학생처를 통해 답변하겠다고 답하다.

- 위원장은 2차 위원회를 1월 12일(화) 오후 4시에 개최하기로 확인하고 회의록 작성일정 준수에 대해 상기시키고 1차 등록금심의위원회 폐회를 선언하다.

확 인	위의 기록이 사실임을 확인함					
	2021년 1월 6일					
	직 위	성 명	서 명	직 위	성 명	서 명
	위원장	강동범		위 원	이상은	
	위 원	김영석		위 원	이수린	
	위 원	노아정		위 원	이희주	
	위 원	박수정		위 원	정도연	
	위 원	배소현		위 원	조은진	
위 원	백옥경		위 원	홍기석		
위 원	유세경					
작 성 자						예산팀 하 지 연 